창 간 정 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 유 율 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63호 The Seungni Shinmun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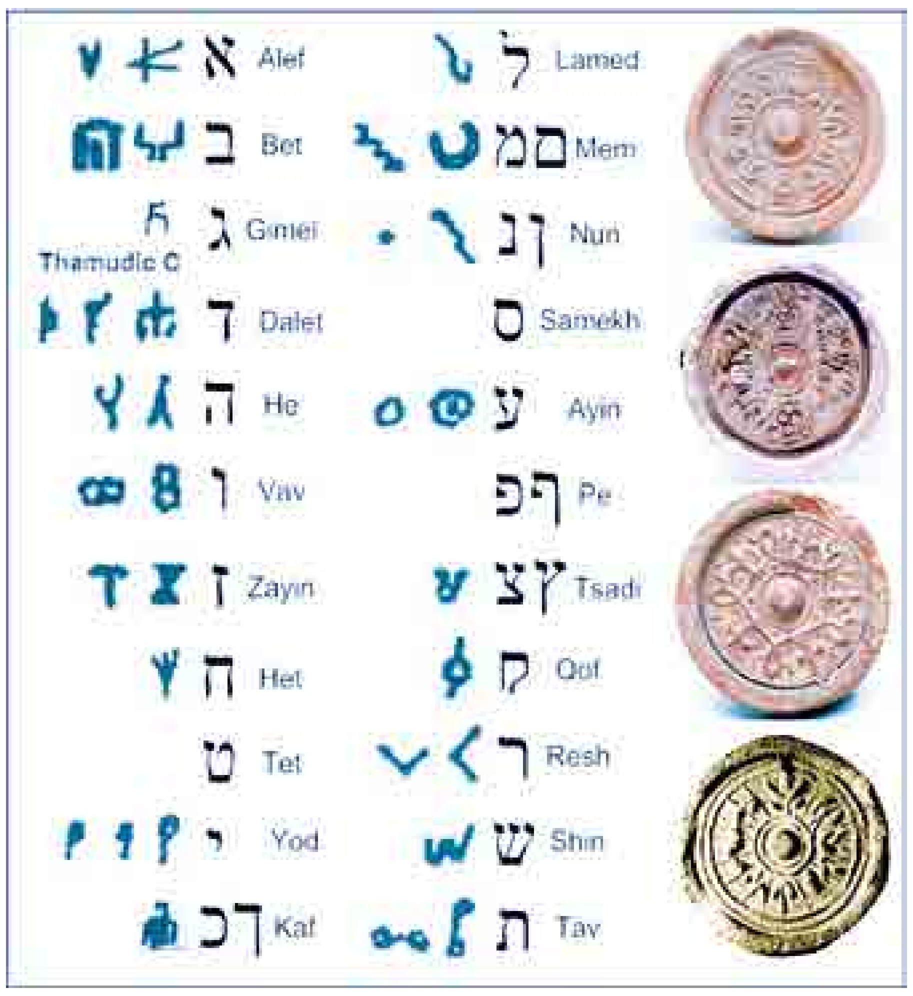
최초의 와당 속에 새겨진 문자는 한민족의 시조와 고조선 건국 시기를 알려준다

최초로 와당(瓦當)을 창안한 민족은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서 고조선을 세웠던 건국 주체세력이다. 고조선 건국 초기에 제작된 와당에는 음양(陰陽)의 세상이 끝나고 무극(無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으며,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가 표현되어 있다.

기왓장의 암키와와 수키와는 음양(陰陽)을 상징하며 와당은 무극시대를 염원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암키와는 큰 원통을 세로로 4등분한 형태로서 여와(女瓦) 또는 평와(平瓦)라고 부르며, 수키와는 원통을 세로로 2등분한 형태로서 남와(男瓦) 또는 원와(圓瓦)라고 부른다. 마치 총살 집행장에서 서 있던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죽을 때 여자는 뒤로 눕고 남자는 앞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암키와를 바닥에 깔고 수키와로 그 이음새를 덮어서 용마루에서 처마까지 기왓골이 나게 된다. 이렇게 용마루에서 처마까지 암키와와 수키와로 중첩되어 있는 모양새가 유구한 세월 동안 죽음이 진행되어온 음양(陰陽)의 세상을 대변한다.

그리고 기왓골 끝에 마지막 수키와는 원형으로 막는데, 이 부분을 수막새 또는 원와당(圓瓦當)이라 한다. 〈기왓골 끝에 마지막 수키와〉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라는 성경 구절에서 〈마지막 아담〉을 상징한다. 마지막 수키와에 부착된 와당(瓦當)이 태양처럼 원형으로 마감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구세주에 의해서 무극(無極)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웅변한다.



고조선 건국 초기에 제작된 4점의 와당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데, 고대 가나안 텔 라기스(Tel Lakhish) 사원에서 발견된 물단지(Ewer) 표면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고대 히브리어)와 일치한다. 고고학적인 유물의 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1220년경의 물단지로 확인되었다.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와당에 한민족의 시조 '단'의 이름이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다

『단(דן)의 독수리 와당』에서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로 새겨진 문양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독수리와 같은 저 단(단군)의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단(דן : Dân)의 독수리 와당은 단지파의 백성들을 독수리로 비유한 와당으로서 고조선의 수도 부근(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 와당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단군의 백성(단지파 백성)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정착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민족은 일종의 신(神)의 계시를 받은 특정 장소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일례로 한민족의 한 갈래로 보이는 멕시코 원주민들이 남긴 고대 그림문헌에는 그들의 조상들은 원래 위가 평평한 피라미드가 있는 아스땅(Aztlan)에 살았지만 "왕(王)이자 제사장(또는 무당) 되는 기질(Huitzil)이 '떠나자, 우리의 신이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선동하여 아스땅(Aztlan)을 떠나 멕시코로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손성태, 『우리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민족이다(멕시코편)』 p.287 인용

오엽화 와당은 한민족이 무궁화를 잘 가꾸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엽화 와당』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가나안 소라성읍을 떠나 동으로 이주할 때, 시리아에서 채집한 무궁화 꽃씨를 한반도에 가져와서 널리 전파하고자 독려하는 내용이 원시 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로 새겨져 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의 어린 묘목을 추위로부터 잘 보호하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한반도 평안도 이북 즉 함경도나 만주에서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무궁화 재배가 불가능하였고, 고조선의 수도가 자리 잡고 있는 평안도 대동강 유역에서는 추운 겨울에 어린 가지를 잘 보살피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제단(天祭壇) 주변에는 무궁화를 심었다는 전설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 대문기와에 무궁화 와당으로 장식된 것은 영생하는 무극시대를 곧 맞이한다는 뜻이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3〉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백 살 먹어도 자신을 어린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한가히 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고로 병에 걸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인 고로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입안에서부터 뱃속까지 생수가 연결된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영인고로 항상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저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이런 일을 당해도 기쁘고, 저런 일을 당해도 즐겁다. 그런고로 소망이 큰 자,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이 된다는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이기는 삶

책을 읽는 이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기 쉬운 말로 어머니 뱃속에서 와서 무덤으로 간다고 하지만 인생(人生)에 대한 답과 그 여정(旅程) 속에서의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을 찾기란 그만큼 힘들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내면세계를 파고들고 그 내면의 무엇을 알고자 종교를 찾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성현(聖賢)들은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글로 남겨 후학들에게 가르침으로 전했으며 그것이 후대에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교양인으로,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현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책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21세기의 중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동서고금의 석학자들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독서로 더 많은 지식을 취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지식은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였고, 빌 게이츠는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공립 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 시간씩, 주말에는 두세 시간씩 책을 읽는다. 대중적 신문이나 잡지 외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주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만일 내가 과학과 비즈니스 등 관심 분야의 책만 읽는다면, 책을 읽고 나서도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책과 잡지를 읽는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작가 신봉승은 "문사철(文史哲) 600"을 강조한다. 지식인이나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30대가 끝나기 전에 문학책 300권,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은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0대가 넘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광으로 꼽히는 김득신의 경우 한유의 '사설'을 1만3천 번 정독했으며, '노자전'과 '중용'의 서문을 2만 번씩 읽었고 '백이전'은 무려 11만 번이나 읽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책을 통해 찾고 또 찾으려 한 전형적인 독서형 리더의 모습이다. 사실 김득신은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10세 때 글을 깨친 우둔아(愚鈍兒)였다. 비록 글은 늦게 깨쳤지만 읽고 또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59세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한시의 대가이자 조선 중기 대표 시인이 될 수 있었다. 그의 묘비에는 '읽기와 실천'에 관한 중요성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뿐이다." 그는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책을 읽는다고 모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리더는 책벌레임에 틀림없다. 리더는 평생 여러 방법을 통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인류의 모든 지혜가 녹아있는 책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줄 스승이라 할 것이다.*

한민족과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이다

기원전 1220년경의 물단지(上)와 북미 암각화에 새겨진 올드네게브(下)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 대문기와에 장식된 무궁화 와당

올드네게브 문자가 일부 합자로 표현되는 특징은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된 한글과 닮았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올드네게브 문자가 사용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단지파의 삼손이 활약하던 때와 일치한다.

올드네게브(Old Negev)의 합자어(合字語)에 익숙한 단지파 민족이 알타이산맥에서 우거할 때에 북쪽 시베리아벌판으로 동쪽 몽골평원 또는 중국 섬서성 기산으로 분파되어 나갔는데, 특히 중국에서 주나라를 세운 단지파는 올드네게브의 합자어 형태를 본 뜬 한자어를 창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단지파의 주류가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지 약 2,500년이 지나서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한글 또한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합자어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파는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 되었는데(손성태 교수의 책 『한민족의 기원』 참조), 몰몬교는 이스라엘의 고대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단지파 사람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아메리카의 남서부에 정착한 단지파 사람들은 바위에 올드네게브의 문자를 많이 새겼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 문자의 암각화가 미국 남서부의 암각화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견되자,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는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화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현대 히브리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의 책에 실린 이스라엘에서 출토된 물단지와 북미 암각화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가 고조선 수막새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민족과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 하겠다.

무궁화 와당

『오엽화 와당』에서 다섯 꽃잎(the five-leaves flower)이 '무궁화'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동일한 시대(고조선 시대), 동일한 장소(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무궁화 와당이다. 무궁화(Rose of Sharon)의 학술명이 〈Hibiscus Syriacus L.〉로써 이 꽃의 원산지가 레바논과 시리아 근처이다. 이러한 점은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을 세운 한민족이 지중해 연안에서 이주해온 단지파 민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3면에 계속

무궁화 꽃술이 다섯 개로 이루어진 특징을 표현

862호 1면 기사 중 "10월 15일은 '조희성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절~"을 "10월 15일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절~"로 정정합니다.